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향후 수주간 일자리와 소비자 지표가 연준 금리 결정할 듯

[미국 금융]

- WSJ: 연준, "22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양호"

[물류]

- WSJ: 트럭 운송업체들, 화물 수요 둔화 겪어

[미 세제 개혁]

- Bloomberg: 트럼프와 공화당, 세제 개혁안 관련 내부 갈등 수습에 박차
- WSJ: 세제 개혁 상원안에는 풍력과 태양광 새 과세 포함...전기차 세금 공제 중단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7월 9일 관세 유예 마감 연장 않겠다"
- Bloomberg: 트럼프, 일본 자동차에 25% 상호 관세 유지 시사
- Bloomberg: 캐나다, 관세 협상 재개 위해 미국에 대한 디지털세 방안 철회
- Bloomberg: 대만, "미국과의 관세 긍정적인 진전 보여"

[오일]

- Reuters: 원유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가격 하향 전망

[인공지능]

- YahooFinance: 마이크로소프트 AI 책임자, "AI가 복잡한 진단할 수 있다"
- WSJ: AI 에이전트, 은행업에 등장했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Reuters: 관세로 중국산 아마존 판매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

[AI와 미 생산성]

- The Economist: 미국의 생산력, 여전히 세상을 이끌고 있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Versus Trump on Tariffs Impact Will Soon Be Put to the Test

향후 수주간 일자리와 소비자 지표가 연준 금리 결정할 듯

-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둔화 현상은 이 같은 예측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 연준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물가 상황을 기다리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 향후 2, 3주간의 일자리 및 소비자 핵심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What's Next for Goldman Sachs and Other Banks After Acing Fed's Stress Test****연준, “22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양호”**

- 연준은 지난 금요일에 올해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한 22개 은행이 심각한 침체 시나리오에서 5천5백억 불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있으며 지속적인 여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연준의 침체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자산에 대해 자본을 계산하는 재무 건전성의 핵심 지표는 1.8% 포인트 감소했지만 대출 기관들은 요구되는 최소 금액의 2배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특히 골드만 삭스와 웰스파고, M&T Bank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WSJ 기사

[물류]**WSJ: Truck Operators Were Hoping for a Recovery. Instead They Got a Trade War.****트럭 운송업체들, 화물 수요 둔화 겪어**

- 트럭 운송업체들은 지난 3년간 수요 둔화를 겪은 상황인데 관세로 인해 화물 물동량 수요 회복 전망을 낮추고 있다.
- 화물 수요가 둔화 상태인데 ISM 화물 지수는 5월에 4% 감소해 28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
- 이와 관련 제조가 감소하고 있는데 5월 ISM 제조 지수는 48.5를 보이고 있고 트럭킹 업체들은 투자를 낮추고 있다.

WSJ 기사

[미 세제 개혁]**Bloomberg: Trump, Republicans Rush to Overcome Internal Clashes on One Big Beautiful Bill****트럼프와 공화당, 세제 개혁안 관련 내부 갈등 수습에 박차**

-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을 둘러싼 내부 충돌을 수습하고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 현재 상원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Medicaid 예산 삭감 및 청정에너지 세금 감면 폐지 일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민주당은 투표 기간 동안 수정안을 제안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Thom Tillis는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메디케이드 삭감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고, 해당 법안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Rand Paul은 개혁안이 가져올 5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언급하며 이에 관해 반대투표를 할 것이라 밝혔다.
- 이미 두 명의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이탈을 방지하고 남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러나, 반대 표가 추가될 경우 상원 내 법안 통과는 어려워지게 된다.

Bloomberg 기사

WSJ: Senate Megabill Stuns the Clean Energy Industry With New Tax on Wind and Solar

세제 개혁 상원안에는 풍력과 태양광 새 과세 포함...전기차 세금 공제 중단

- 연방 상원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에는 향후 2027년부터 중국의 부품을 일정 비율 사용하는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친환경 에너지 업체들은 이번 소식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의회와 관련 민관 기업 간의 약속이 깨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는 오는 9월부터 전기차 세금 공제가 사라지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 등 관련 업체 지도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WSJ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 Says He Doesn't Expect to Extend July 9 Tariff Deadline

트럼프, “7월 9일 관세 유예 마감 연장 않겠다”

- 트럼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고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7월 9일 관세 유예 마감일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트럼프와 행정부는 그 기간동안 여러 국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미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 당초 연방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가 연장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가 연장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Says 'Mr Japan' Unfair on Cars, Floats Keeping 25% Tariff

트럼프, 일본 자동차에 25% 상호 관세 유지 시사

-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유지를 시사했다.

- 현재 양측은 합의하는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일본 측 수석 협상자 Ryosei Akazawa는 양자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합의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anada Drops Digital Tax That Infuriated Trump to Restart Trade Talks

캐나다, 관세 협상 재개 위해 미국에 대한 디지털세 방안 철회

-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기술 회사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 부과를 철회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디지털세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 작년에 법으로 통과된 이 내용은 캐나다 달러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양국은 7월 21일까지 관세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aiwan Says It Made Constructive Progress in US Trade Talks

대만, “미국과의 관세 긍정적인 진전 보여”

- 대만과 미국은 두 번째 무역 협상에서 건설적인 진전(constructive progress)을 보였다.
- 양측의 의제는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공급망 이슈와 함께 상호 번영을 위한 상호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아리조나에 1천6백50억 불을 투자해 6개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2개의 패키징 시설과 1개의 연구센터를 세워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Reuters: Geopolitical tensions nudge oil outlook higher, but demand concerns persist: Reuters poll

원유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가격 하향 전망

- 중동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분석가들이 올해 유가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OPEC+의 공급 증가와 수요 우려로 인해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다.
- 브렌트유는 2025년 배럴당 평균 67.86달러로 전망되는데, 5월 전망치인 66.98달러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미국산 원유 또한 지난달 전망치인 63.35달러

보다 높은 64.51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이란-이스라엘 갈등과 미국의 개입으로 이번 달 브렌트유 가격은 81.4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휴전 이후 67.14달러로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을 완화했다.
- 많은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가격 급등은 일시적일 뿐이며,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극심한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 또한, OPEC+의 생산량 증가와 안정적인 재고가 원유 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Reuters 기사

[인공지능]

YahooFinance: Microsoft AI CEO Mustafa Suleyman: AI can provide complex medical support, diagnoses **마이크로소프트 AI 책임자, “AI가 복잡한 진단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복잡한 의료 사례를 진단하는데 AI가 의사를 앞설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회사 AI 책임자인 Mustafa Suleyman는 “우리는 Copilot과 Bing를 통해 하루에 5천만 건의 건강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목표는 최고의 수준과 정확성 그래서 결국 가장 령한 서비스를 AI를 통해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AI 진단 시스템(Microsoft AI Diagnostics Orchestrator)을 통해 뉴잉글랜드 의학지 사례의 85%까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WSJ: Digital Workers Have Arrived in Banking **AI 에이전트, 은행업에 등장했다**

- Bank of New York Mellon(BNY)이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AI 기반 ‘디지털 직원’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다 말했다.
- BNY의 CIO Leigh-Ann Russell은 인간이 아닌 AI가 직속 상사를 두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미래에는 이메일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해 동료와 소통하며 협업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 BNY에서는 이를 “디지털 직원”이라 부르지만, 다른 은행들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인력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다만 JP모건과 같은 몇몇 기업은 아직까지는 적절한 접근, 관리,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해 인간과 얼마나 유사해질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BNY는 디지털 직원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이메일, Microsoft Teams 등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해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코딩이나 결제 검증 이상의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Reuters: US prices for China-made goods on Amazon rise faster than inflation, analysis shows, as tariffs bite 관세로 중국산 아마존 판매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

-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 Reuters 분석에 따르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중국산 제품 1,400여 개 품목이 2.6% 상승하여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 학용품 및 사무용품, 프린터기 등 전자 제품, 그리고 가정용품의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밀턴 전기 주전자는 중간값 49.99달러에서 73.21달러로 올랐다.
- 4월까지 해당 제품군의 물가 상승률은 미미했지만, 5월에 급등한 이후 6월에 가속화되었다. 이미 수많은 소비재 기업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Reuters 기사

[AI와 미 생산성]

The Economist: 미국의 생산력, 여전히 세상을 이끌고 있다. 혁신 부문과 기술 부문에서 미국은 꾸준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텍사스 전자 연구소에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설계 실험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 구조를 유리판과 결합된 형태로 바꾸고, 칩을 수직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8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DARPA는 인터넷 발명, GPS 대중화, 팬데믹 시기 mRNA 백신 개발 등 주요 기술 발전에 관여해왔고, 현재도 다양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 기술 투자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근로자는 올해 약 17만 1천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유로존(12만 달러), 영국(11만8천 달러), 일본(9만6천 달러)에 비해 높은 수치이고, 1990년 이후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70% 가량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영국은 46%, 일본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흔히 미국의 높은 노동 시간과 부족한 휴일로 인해 미국의 생산성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간당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조차, 미국은 1990년 이후 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으며, 상대적으로 더 강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The Economist 기사

[보고서]

시장도 예상 못했다...상반기 미 증시 롤러코스터·약달러

트럼프 취임 후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 요동
4월 상호관세 발표 때 급락한 S&P500 사상 최고가
"미국 자산 예외주의에 금 가" 평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자산 예외주의'에 금이 가고 미국 이외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연초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펼쳐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달러 가치 하락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주가지수 변동성을 예상한 견해는 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연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 달러 가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